

치위생(학)과 학생의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지형 · 김기은^{1†}

수원과학대학교 치위생과, ¹을지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치위생학과

Interpersonal Skills Caused by Emotional Intelligence and Ego Resiliency of Students Majoring in Dental Hygiene

Ji-Hyoung Han and Ki-Eun Kim^{1†}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uwon Science College, Hwaseong 18516,

¹Department of Dental Hygiene, College of Health Science, Eulji University, Seongnam 13135, Korea

Four hundreds and eighty-seven dental hygiene students were selected and a questionnaire survey was carried out to find out how emotional intelligence and ego resiliency affect interpersonal skills so that this can be the basis to enhance their interpersonal skills. PASW statistics 18.0 was used for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I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at students with higher emotional intelligence and ego resiliency and good interpersonal skills answered that they had high economic standard of living ($p < 0.001$, $p < 0.05$). Students raised by parents showed high emotional intelligence and ego resiliency ($p < 0.05$), same result was shown among religious students too ($p < 0.05$). Students with high ego resiliency showed better interpersonal skills ($p < 0.001$), and ego resiliency influenced more on interpersonal skills than emotional intelligence. Therefore, curriculum to develop emotional intelligence and ego resiliency of dental hygiene students to improve their interpersonal skills which is one of the core competences of dental hygienist needs to be planned in the course.

Key Words: Ego, Emotio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skill, Resilience

서론

의료시장은 급격한 변화와 함께 경쟁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 최근 병원조직들은 저비용 고효율의 경영혁신을 강조하며 환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의 질 향상 및 조직의 업무 성과 증진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가장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인적자원 관리이다¹⁾. 병원조직은 다양한 직종과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¹⁾, 여러 유형의 환자가 내원하여 응대해야 한다. 치과위생사는 치과의료기관의 중간관리자 및 경영동반자로서^{2,3)} 환자와 끊임없이 접촉하고 조직 내 다양한 직종과 협력을 주도하며, 조직성과를 이끌어 낸

다. 조직성과를 높이고 조직구성원 및 환자와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대인관계능력이 요구되는데 대인관계능력이란 타인의 마음과 감정, 느낌을 이해함으로써 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가는 능력이다. 또한 타인과 신뢰감 및 친근감을 구축하여 사회적 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라 할 수 있다^{4,7)}. 대인관계능력은 조직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등을 통해 조직의 응집력과 직무만족 및 업무의 효율에 영향을 준다^{1,8)}. 따라서 대인관계능력은 치과위생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성공적인 인관관계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감성지

Received: October 28, 2015, Revised: November 9, 2015, Accepted: November 9, 2015

ISSN 1598-4478 (Print) / ISSN 2233-7679 (Online)

†Correspondence to: Ki-Eun Kim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College of Health Science, Eulji University, 553 Sanseong-daero, Sujeong-gu, Seongnam 13135, Korea
Tel: +82-31-740-7247, Fax: +82-31-740-7352, E-mail: hsun0405@naver.com

Copyright © 2015 by the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Science

©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능이 필요한데⁹⁾, 감성지능 역시 고객과 접촉하는 서비스 조직인 경우 더욱 요구된다¹⁰⁾. 감성지능이란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조절하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6,11)}. 최근 감성지능은 대인관계능력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되고 있으며, 선행연구에서도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유연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며 개방적인 의사소통으로 신뢰관계와 팀워크 형성에 도움이 되고 대인관계능력도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1,5,9)}. 즉 감성지능은 상대를 배려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유도하며, 대인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대인관계에 필수적인 역량이 되는 것이다¹²⁾.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대인관계는 감성지능 외에 탄력적이고 융통적인 개인의 특성, 즉 자아탄력성을 필요로 한다¹³⁾. 자아탄력성은 적응능력으로서 개인의 감정을 조절하고 상황과 요구에 융통성 있게 반응하는 것으로 행동과 문제 해결 전략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14,15)}. 자아탄력적인 사람일수록 인지적 능력과 정서적 안정감을 갖추고 있으며, 긍정적 정서를 이용하여 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회복한다고 보고하고 있다^{16,17)}. 자아탄력성과 대인관계의 관련성을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갈등상황이 저하되고 스트레스의 대처능력이 향상되며 대인관계 문제를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19)}.

치위생(학)과 학생은 교육과정 중 임상실습을 통해 일찍이 치위생 업무를 경험하게 되고 병원관계자 및 환자와 대인관계를 형성하며 윤리의식과 책임감 등을 터득하게 된다. 또한 치위생(학)과 학생은 미래의 치과위생사로 대학생 때부터 감정을 잘 조절하고 여러 스트레스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²⁰⁾. 기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간호대학생이나 간호사를 대상으로 감성지능과 스트레스, 대인관계능력과 자아탄력성의 관계를 규명한 논문은 있으나^{1,21,22)}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감성지능, 자아탄력성 및 대인관계능력의 관련성을 연구한 논문은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미래의 구강보건인력인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수원과학대학, 을지대학교 치위생(학)과 1, 2, 3학년 재학생을 편의표본추출하여 선정하였으며, 2015년 9월 11일부터 9월 18일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497부 중 한 문항 이상 작성이 되지 않았거나, 일괄적인 답변을 표기한 11명의 자료를 제외한 486부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 참여에 대한 익명성 보장 등을 설명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면 동의를 설문지에 포함하여 기본적인 연구윤리 기준을 준수하였다.

2. 연구도구

1) 감성지능

Wong과 Law¹¹⁾가 개발한 Wong &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WLEIS)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는 총 16 문항으로 자기감성이해 4문항, 타인감성이해 4문항, 감성조절 4문항, 감성활용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형 척도로 측정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신뢰도를 입증하는 Cronbach's α 계수는 0.816이었다.

2) 자아탄력성

Shin 등²³⁾이 개발한 한국형 회복탄력성 지수 검사를 검토 후 변형하여 사용한 Lee¹⁵⁾의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26문항으로 통제성 9문항, 긍정성 9문항, 사회성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형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Cronbach's α 계수는 0.831이었다.

3) 대인관계능력

Schlein 등²⁴⁾이 개발한 대인관계변화척도를 Chang⁷⁾이 수정 보완한 도구로 6개 하위영역 총 18개 문항으로 의사소통 3문항, 신뢰감 3문항, 친근감 3문항, 민감성 2문항, 개방성 4문항, 이해성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형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Cronbach's α 계수는 0.876이었다.

3. 자료분석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구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감성지능, 자아탄력성 및 대인관계능력은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자아탄력성 및 대인관계능력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t-test 및 one 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등분산 검정은 Levene 통계량을 사용하였고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Duncan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감성지능, 자아탄력성 및 대인관계

능력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를 사용하였고,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PASW Statistics ver. 18.0 (IBM Co.,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으며, 유의성 판단을 위한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총 486명 여학생으로 1학년 32.7%, 2학년 33.3%, 3학년 34.0%였으며, 거주지역은 경기도 59.7%, 서울 26.5% 인천 11.5%로 나타났다. 주된 양육자는 부모 95.5%였고, 종교가 있는 학생 40.7%, 종교가 없는 학생 59.3%로 나타났다. 주관적인 가정경제수준은 상 1.2%, 중상 32.5%, 중하 58.6%, 하 7.6%로 조사되었다(Table 1).

2. 연구대상자의 감성지능, 자아탄력성 및 대인관계능력 정도

연구대상자의 감성지능은 5점 만점에 평균 3.33점이었으며 하위영역 중 타인감정이해가 3.70점으로 가장 높았다. 자아탄력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48점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성이 3.7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계성이 3.3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인관계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은 3.54점이었으며 친근감이 3.6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해성이 3.61점, 의사소통 3.60점, 신뢰감 3.55점, 민감성

3.48점, 개방성 3.39점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자아탄력성, 대인관계능력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자아탄력성, 대인관계능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감성지능, 자아탄력성, 대인관계능력이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5$). 부모님이 주된 양육자인 학생의 감성지능,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다($p < 0.05$), 종교가 있는 학생의 경우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이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5$).

4. 감성지능 및 자아탄력성과 대인관계능력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 및 대인관계능력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Table 4와 같다. 감성지능은 자아탄력성($r=0.697$), 대인관계($r=0.568$)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자아탄력성은 대인관계능력($r=0.7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과 대인관계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5.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요인들의 적합모형 유의성을 나타내는 F통계량은 242.732이고 설명력은 50.8%였다.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능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486)

Characteristic	Category	n (%)
Grade	First grader	159 (32.7)
	Second grader	162 (33.3)
	Third grader	165 (34.0)
Residence	Seoul	129 (26.5)
	Gyeonggi-do	290 (59.7)
	Incheon	56 (11.5)
Fosterers	Other	11 (2.3)
	Parent	464 (95.5)
	Single father	5 (1.0)
Religious life	Single mother	14 (2.9)
	Grandparents	3 (0.6)
	Yes	198 (40.7)
Economic level	No	288 (59.3)
	Excellent	6 (1.2)
Economic level	Good	158 (32.5)
	Fair	285 (58.6)
	Poor	37 (7.6)

Table 2. Level of Emotional Intelligence, Ego Resilience, Interpersonal Skill

Variable	Category	Mean±SD
Emotional intelligence	Self emotional appraisal	3.65±0.70
	Others, emotional appraisal	3.70±0.62
	Regulator of emotionals	2.86±0.80
	Use of emotionals	3.10±0.72
Ego resilience	Total	3.33±0.47
	Control	3.30±0.48
	Positivity	3.47±0.65
Interpersonal skill	Sociality	3.72±0.53
	Total	3.48±0.46
	Communication	3.60±0.63
	Trust	3.55±0.63
	Intimacy	3.64±0.65
Interpersonal skill	Sensitivity	3.48±0.70
	Openness	3.39±0.62
	Understanding	3.61±0.63
	Total	3.54±0.47

SD: standard deviation.

Table 3. Emotional Intelligence, Ego Resilience, Interpersonal Skill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Emotional intelligence		Ego resilience		Interpersonal skill	
	Mean±SD	p	Mean±SD	p	Mean±SD	p
Grade						
First grader	3.39±0.49	0.132	3.48±0.48	0.846	3.58±0.51	0.311
Second grader	3.34±0.49		3.50±0.43		3.51±0.44	
Third grader	3.28±0.47		3.51±0.50		3.53±0.45	
Economic level						
Excellent	3.98±0.78 ^a	<0.001	3.93±0.93 ^a	<0.001	3.60±0.89 ^a	0.011
Good	3.48±0.46 ^b		3.63±0.46 ^{a,b}		3.64±0.47 ^a	
Fair	3.24±0.45 ^b		3.42±0.45 ^b		3.49±0.45 ^a	
Poor	3.32±0.53 ^b		3.41±0.44 ^b		3.46±0.44 ^a	
Fosterers						
Parent	3.49±0.45 ^{a,b}	0.001	3.61±0.49 ^a	0.032	3.60±0.49	0.371
Single father	3.35±0.53 ^a		3.48±0.44 ^a		3.58±0.49	
Single mother	3.42±0.49 ^{a,b}		3.51±0.41 ^a		3.57±0.32	
Grandparents	3.28±0.47 ^a		3.45±0.46 ^a		3.51±0.46	
Religion						
Yes	3.42±0.49	0.002	3.55±0.47	0.016	3.58±0.46	0.082
No	3.28±0.47		3.46±0.46		3.51±0.46	
Residence						
Seoul	3.34±0.51	0.278	3.46±0.53	0.584	3.50±0.51	0.590
Gyeonggi-do	3.31±0.47		3.50±0.43		3.54±0.45	
Incheon	3.45±0.50		3.57±0.51		3.61±0.45	
Other	3.34±0.45		3.46±0.34		3.52±0.39	

SD: standard deviation.

Data was analysed by t-test and one-way ANOVA statistics.

^{a,b}The same letter indicates no significant difference by Duncan.**Table 4.** The Relation between Variable

Variable	EI	ER	IS
EI	1		
ER	0.697**	1	
IS	0.568**	0.701**	1

EI: emotional intelligence, ER: ego resilience, IS: interpersonal skill.

Data was analysed by pearson corelation statistics.

**p < 0.01.

력이 좋았으며(p < 0.001), 자아탄력성이 감성지능보다 대인관계능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고찰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인 대인관계능력에 대해 미래 치과위생사가 될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Interpersonal Skill

Variable	B	SE	β	t	p
Variable	0.937	0.121		7.767	<0.001
EI	0.154	0.044	0.157	3.509	<0.001
ER	0.597	0.045	0.594	13.248	0.001

R²=0.508, F=242.732

SE: standard error, EI: emotional intelligence, ER: ego resilience.

Data was analys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 및 대인관계능력 정도를 측정된 결과 감성지능은 평균 3.33점으로 Lee 등⁴⁾의 연구와 Ko와 Kim¹⁾의 연구, Lee⁵⁾의 연구, Shin²¹⁾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감성지능의 하위영역 중 타인감정이해가 3.70점으로 가장 높았는데 Lee 등⁴⁾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그 외 연구^{1,5,21)}는 자기감성이해가 높게 나타났고 보편적으로 감성 조절과 감성활용이 낮았다. 치과위생사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과 보호자의 감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성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치위생(학)과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감성조절과 감성활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비중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아탄력성은 평균 3.48점으로 Lee 등⁴⁾의 연구와 Lee¹⁵⁾의 연구, Choi와 Lee¹⁸⁾의 연구, Shin²¹⁾의 연구, Ji 등²²⁾의 연구와 유사하였다. 하위영역 중 사회성이 가장 높았고, 통제성이 가장 낮았는데 이는 Lee¹⁵⁾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사회성은 타인의 마음과 감정 상태를 빨리 파악하고 이해하며, 깊이 공감함으로써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¹⁵⁾. 치위생(학)과 학생은 전반적으로 환자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아픈 환자와 대면 시간이 가장 긴 치과위생사의 자질에 적합한 면모를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가장 낮았던 통제성은 스스로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으로 스스로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통제하고 대처하는 것이다¹⁵⁾. 통제성이 부족하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병원생활에 불만족하고 이직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통제성을 기르는 훈련이 요구된다. 그 외에도 긍정성은 실패와 고난, 역경 등의 불행을 극복할 수 있는 낙관적 태도를 의미하며 삶에 만족과 감사의 태도를 갖는 것이다. 즉 자아탄력적인 사람일수록 생활의 의미를 찾아내고 효과적으로 정서를 조절하며, 좌절과 스트레스 상황을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15,17)}. 따라서 치위생(학)과 학생들에게 개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자신에게 맞는 취업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야 할 것이다. 이에 치위생 교육과정 중 학생들에게 자아탄력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자아탄력성을 증기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

대인관계능력은 평균 3.54점이었으며 친근감이 가장 높고 이해성, 의사소통, 신뢰감, 민감성, 개방성 순이었다. Ko와 Kim¹⁾의 연구에서도 평균 3.44였으며 친근감, 이해성, 신뢰감, 민감성, 의사소통, 개방성 순이었고, Lee 등⁴⁾의 연구에서는 평균 3.37이었으며 친근감, 이해성, 신뢰감, 의사소통, 개방성, 민감성 순이었다. 대부분 친근감, 이해성, 신뢰성이 높았으나 개방성은 낮았다. 개방성은 자신의 내면을 솔직히 드러내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전달하여 만족감을 얻는 것이다⁴⁾. 그러나 치과위생사는 업무 중 동료나 환자 및 보호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내면을 솔직히 드러내기 어려우며 실제 감정과 다르게 상대방이 원하는 감정에 맞춰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에게 개방적 의사소통의 개념과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취업 후 경험하게 되는 곤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할 것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제수준이 높을

수록 감성지능, 자아탄력성, 대인관계능력이 높았다. 또한 부모님이 주된 양육자인 경우, 종교가 있는 경우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이 높았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⁴⁾, 기혼일수록^{1,4,5)}, 학력이 높을수록⁵⁾ 감성지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은 기혼일수록⁴⁾, 대인관계능력은 기혼자일수록, 정규직일수록¹⁾ 높았다.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 및 대인관계능력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과 대인관계능력이 높았고,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도 높았다. 특히 자아탄력성이 감성지능보다 대인관계능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 비교가 어렵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이 대인관계 문제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으며¹⁹⁾,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²¹⁾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1,4)}에서도 감성지능과 대인관계능력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현대인들에게 사회 속에서 대인관계는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대인관계능력은 직장 내 인재가 갖추어야 될 핵심역량으로 평가된다¹⁾. 특히 치과위생사는 조직구성원 간 협조적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환자 및 보호자와 치료적 관계를 유지하는 직종이다. 대인관계능력은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조직과 병원의 업무 성과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임상 현장에서 원활한 치위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육을 통해 대비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일부 지역의 학교를 편중하여 추출하였고, 변수에 대한 대상자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거하였으므로 일반화하기에 제한이 있다. 그러나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대인관계능력에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의 관계를 입증하고 매개효과를 규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추후 임상에서 활동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요 약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재학생 486명을 대상으로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대인관계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분석은 PASW Statistics 18.0을 이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자아탄력성, 대인관계능력의 차이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감성지능, 자아탄력성, 대인관계능력이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01$, $p < 0.05$). 부모님이 주된 양육자인 학생의 감성지능,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p < 0.05$), 종교가 있는 학생의 경우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이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연구 대상자의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좋았으며($p < 0.001$), 자아탄력성이 감성지능보다 대인관계능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치과위생사의 핵심역량 중 하나인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치위생(학)과 재학시절부터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Ko HR, Kim JH: The relationships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job satisfaction of clinical nurses. *J Korean Acad Soc Nurs Edu* 19: 571-579, 2013.
2. Park MY: A study on the satisfaction and stress factor of clinical practice for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J Dent Hyg Sci* 6: 243-249, 2006.
3. Kang BW: A study on the causal factors of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Korea dental hygienists ca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Suwon, 2000.
4. Lee OS, Gu MO, Kim MJ: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ego resilience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nurses. *J Korea Acad-Ind Coop Soc* 16: 3902-3910, 2015.
5. Lee SJ: Emotio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nursing performance among clinical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uwon, 2013.
6. Kim SM: A structural model analysis of variable affecting children's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rmative compet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sis, Duksung Woman's University, Seoul, 2009.
7. Chang HS: The association between self-esteem, relationship style, and etiquette implementation in adolesc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2007.
8. Koo SK: Item analysis of test for interpersonal competency by generalized partial credit model.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 University, Seoul, 2010.
9. McQueen AC: Emotional intelligence in nursing work. *J Adv Nurs* 47: 101-108, 2004.
10. Bayarmaa B: A study on the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organization citizenship and customer service behaviors: focusing on the hotel works in Mongolia.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2013.
11. Wong CS, Law KS: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Leadersh Q* 13: 243-274, 2002.
12. Rosa MJ: Emotional skill-key components in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JPAAG* 1: 237-251, 2011.
13. Sung SO, Park MD, Kim YH: Mediation effect of ego-resilience on correlation between school stress and adjustment of adolescents. *Korean J Youth Stud* 20: 49-70, 2013.
14. Block JH, Block H: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Minnesota Symposia Child Psychol* 13: 39-101, 1980.
15. Lee YM: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ego-resilience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ir career matur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 University, Seoul, 2013.
16. Jang HS: Resilience as a factor interrupting psychological disorders. *Korea J Psychol Gen* 14: 113-127, 2001.
17. Tugade MM, Fredrickson BL, Feldman Barrett L: Psychological resilience and positive emotional granularity: examining the benefits of positive emotions on coping and health. *J Pers* 72: 1161-1190, 2004.
18. Choi HJ, Lee MS: The associations of social support and ego-resilience on college adjustment among dental hygiene freshmen. *Korean Pub Health Res* 39: 129-138, 2013.
19. Kim JY: The influence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ego-resilience on interpersonal problems in undergraduate stud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2007.
20. Kim SJ, Kim HH: Impact of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empathy abilitie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ies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J Dent Hyg Sci* 13: 304-313, 2013.
21. Shin EJ: Emotional intelligence, ego resilience stres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2011.
22. Ji EJ, Bang MR, Jeon HJ: Ego resilience, communication ability and problem-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 19: 571-579, 2013.
23. Shin WY, Kim MG, Kim JH: Developing measures of resil-

ience for Korean adolescents and testing cross,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Korean J Youth Stud 20: 105-131, 2009.

24. Schlein S, Guerney B, Stover L: The interpersonal relation-

ship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sis,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University Park City, 1971.